



EAI 여론브리핑 45호 보도자료



배포일 2009년 5월 3일

▣ 제목 : 동아시아연구원(EAI) · 한국리서치 4월 여론바로미터 조사결과

동아시아연구원(EAI · <http://www.eai.or.kr>)과 한국리서치(<http://www.hrc.co.kr>)는 2009년 2월부터 매월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19세 이상 전국의 남녀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CATI)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조사 주제

경제위기와 가족

1. 가정생활 만족도 71.1점

- 소득 낮을수록 만족도 낮아져, 연령대별 만족도 50대 이상에서 급격히 하락

2. 경제위기와 가족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경제고와 가족문제 이중고

- 가정 위협요인 : 불안한 가계경제 > 자녀 교육문제 > '가족 구성원의 건강' 順
- 20대와 50대 이상은 가계경제, 30대와 40대는 자녀 교육문제 비중 커
- 소득 낮을수록 가계경제와 가족건강, 소득 높을수록 자녀 교육문제 비중 높아져

3. 문제발생 시 가족 의존도 40% 그쳐, 믿고 의지할 곳 없는 계층 37.1%

- 걱정거리 해소 의지 대상 가족 40.0%, 나 자신 27.3%, 의지할 데가 없다 9.8%
- 저소득층, 저학력층, 50세 이상 장년층은 가족을 믿고 의지한다는 응답 저조
- 전문가를 찾는다 1.8%에 불과, 친척에 의지 0.9%, 이웃에 의지 0.3%

4. 가정문제로 인한 병리현상 - 사회취약계층에 집중, 비관적 미래

- 지난 1년간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경험했다 8.5%, 자살을 생각해보았다 6.2%, 가족 간의 폭력이 있었다 4.4%, 별거나 이혼을 경험했다 3.5%
- 1년 후의 가족 관계 지금보다 좋아질 것 47.3%, 지금과 비슷할 것 47.3%, 지금보다 나빠질 것 4.0%

 내용문의 EAI 정한울 부소장 (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 가정생활 만족도 71.1점 -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정 만족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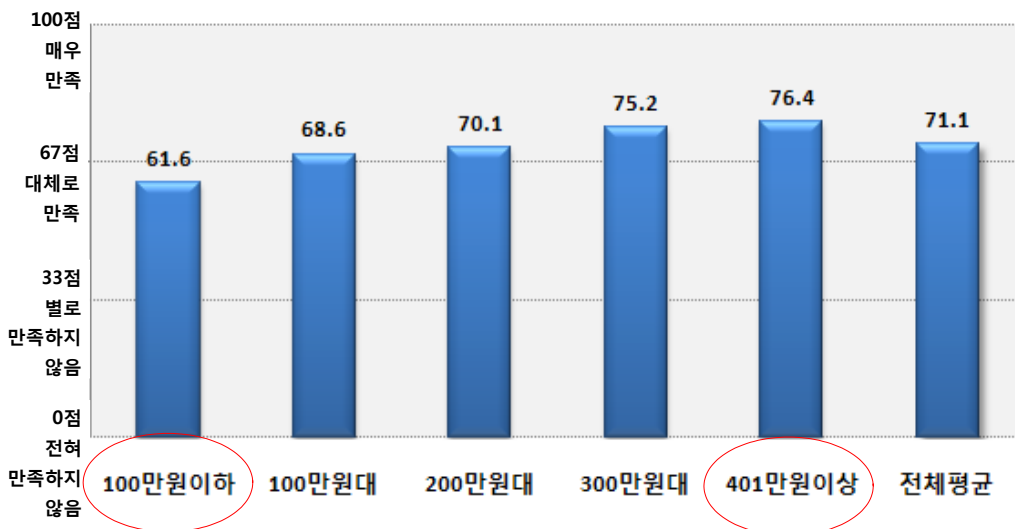
소득 및 학력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50대 이상 장년기 이후 가정 만족도 낮아
결혼가정(배우자 사별, 이혼) 역시 가정 만족도 떨어뜨리는 요인

모든 사람들이 가정생활에 있어 100점의 만족도를 희망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71.1점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한다’에서 ‘전혀 만족한다하지 않는다’까지의 4점 척도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각각 100점에서 0점까지로 4등분하여 계산하여 구한 결과다(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 33.3점-별로 만족하지 않음, 67점-대체로 만족, 100점-매우 만족).

그러나 개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지위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큰 차이가 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할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지위가 가정생활을 평가의 주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정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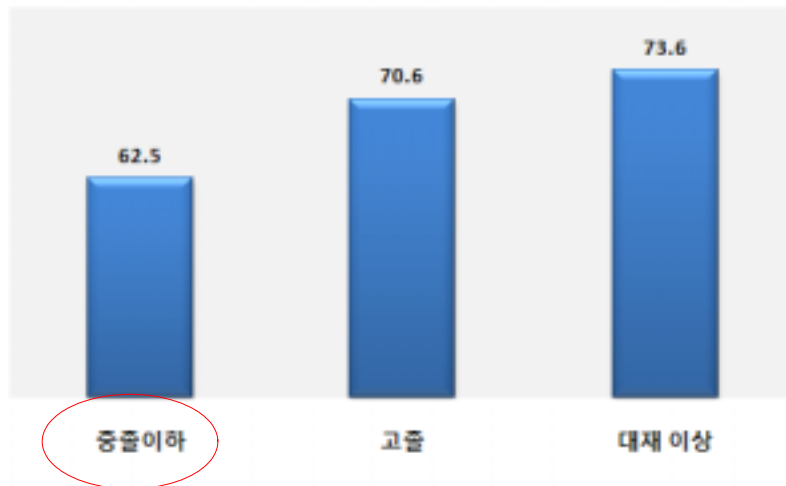
우선, 가정의 소득수준이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인 상위소득층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7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월소득 300만원대 층에서는 75.2점, 200만원대에서는 70.1점, 1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는 68.6점에 그쳤다. 그러나 월 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최하위 소득층에서는 61.6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1] 월평균 가구소득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학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학력보다 고학력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재학 이상 응답층에서는 73.6점으로 역시 고학력층일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고졸 층에서는 70.7점이었다. 중졸 이하 학력 층에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62.5점이었다. 역시 저학력 취약계층에서 가정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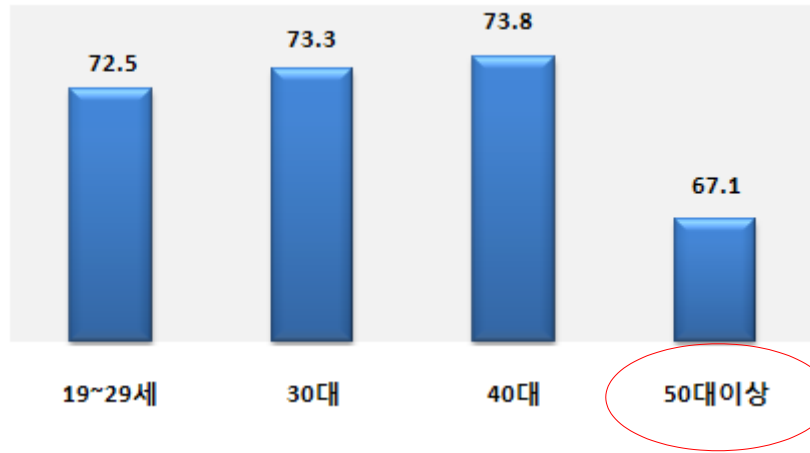
[그림 2] 학력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가족만족도 조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20대 30대 청년기를 거쳐 40대 중년기까지는 가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지만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는 50대 이상 세대에서 급격히 만족도가 떨어진다. 20대의 경우 72.5점, 30대 73.3점, 40대에서는 73.8점으로 대체로 만족도 점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 점수가 67.1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낮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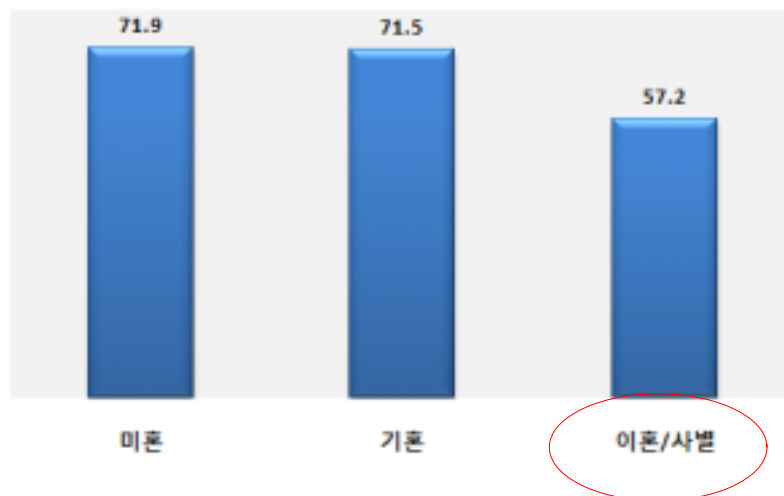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경우 청년기, 중년기 동안 치열한 사회경쟁에서 살아남고 가정의 기반을 닦기 위해 전력을 다해 온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성장기 물질적 혜택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 저소득층과 저학력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에서 정년과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졌다. 사회적 기반 다지기과 자녀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자마자 장년기와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 시대의 50대야말로 그 어느 세대보다 가정에서 안정과 위안이 필요한 세대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사실은 이들 계층이 갖게 되는 사회적, 개인적 상실감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림 3] 연령대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가정 내부의 문제도 가정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최근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이혼 등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주로 20-30대로 구성된 미혼 응답자들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71.9점이었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린 기혼 응답층에서는 71.5점이었다. 그러나 이혼/사별의 경우 만족도 점수는 57.2점에 불과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손 가정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는 노력 못지않게 결손가정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림4] 가정형태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 경제위기와 가족 :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위기와 가족 위기 중첩

경제3품(소득감소/실직/부채) > 자녀 교육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20대와 50대 이상은 가계경제, 30대와 40대는 자녀 교육 가장 걱정거리로 꼽아
 소득 낮을수록 가계경제와 가족건강, 소득 높을수록 자녀 교육문제 비중 높아져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가정 내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로 '경제문제'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계경제에는 소득이나 자산의 감소, 실업이나 명예퇴직 그리고 부채나 신용불량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응답비율은 37.4%였다. '자녀 교육 문제'를 꼽은 비율도 20.3%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라는 응답비율로 15.1%였으며 '노후대책'이 10.7%였다. 반면, '가족 간의 불화'를 꼽은 비율은 1.3%로 보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0.1%였다.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11.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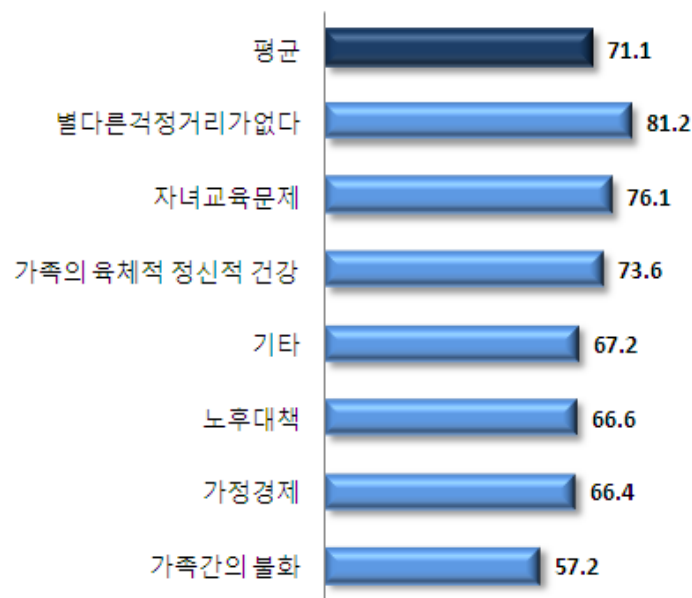
[그림 1] 가정 내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 (단위 : %)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걱정거리 중에서 본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불화 문제'와 '경제고' 및 '노후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족 간 불화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57.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여러 걱정거리 중 가족 간 불화문제를 본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는 1.2%에 불과해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대신 경제와 연관성이 깊은 불안한 가계경제와 노후대책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경제고-37.4%, 노후 문제-10.7%). 실제로 불안한 가계경제 문제를 꼽은 경우에서의 가정생활 만족도 평균 점수는 66.4점이었다. 노후 대책을 걱정하는 응답자들의 가정만족도는 66.6점이었다. 반면, 본인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자녀 교육문제라고 답한 경우에는 76.1점,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꼽은 경우에는 73.6점으로 평균 만족도 점수보다 높다. 자녀 교육문제를 다른 걱정거리에 비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20.3%에 달했지만 이것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과급력은 경제문제나 노후 문제 등에 비해 크지 않았다. 역시 별 걱정거리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81.2점으로 가장 높은 가정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2] 가정 내 걱정거리별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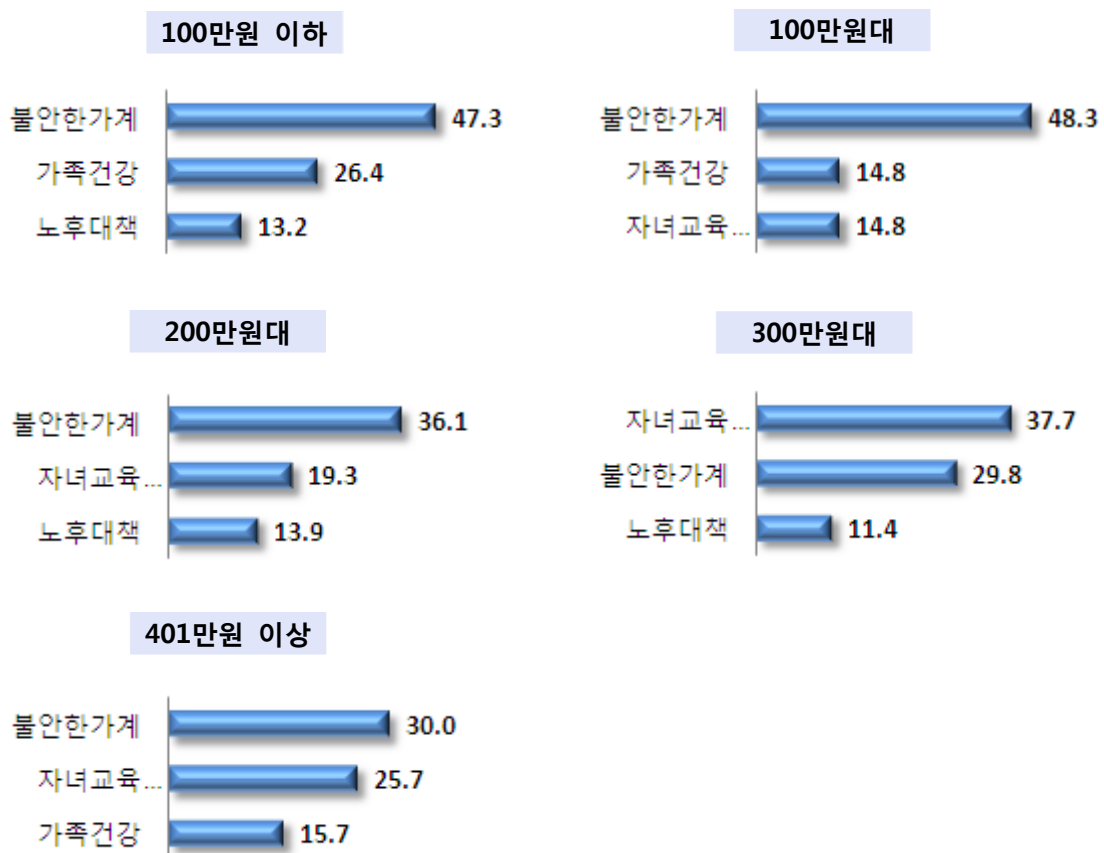


계층별로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비교해보면 우선, 소득감소, 실직, 부채와 같은 경제불안요인은 전 계층, 전 사회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특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수준, 학력, 세대별로 독특한 특징들도 발견된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규모가 낮을수록 가계경제고와 가족의 건강을 꼽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가계경제문제와 함께 자녀 교육문제나 노후 대책을 걱정하는 비율이 높다. 월 가정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과 100만원대 계층에서는 가정경제의 불안요인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47.3%, 48.3%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가족의 건강 걱정이 그 뒤를 이었다. 100만원 미만 계층에서 26.4%, 100만원대 소득층에서 14.8%였다. 한편 중간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200만원대 소득층

과 300만원대 소득층에서는 자녀교육 문제와 노후대책문제가 중요한 걱정거리로 등장한다. 200만원대 계층에서는 역시 가정경제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았지만 자녀 교육문제가 19.3%, 노후대책 문제가 13.9%로 뒤를 이었다. 300만원대 소득층에서는 자녀교육문제를 고민하는 응답자가 37.7%로 가장 많았고, 가정경제 불안요인을 꼽은 응답자가 29.8%, 노후 대책을 꼽은 응답자는 11.4%였다. 400만원 이상의 상위소득층에서도 가정경제 불안을 꼽은 응답이 30.0%로 가장 많은 가운데 자녀교육문제 응답이 25.7%, 가족건강 문제가 15.7%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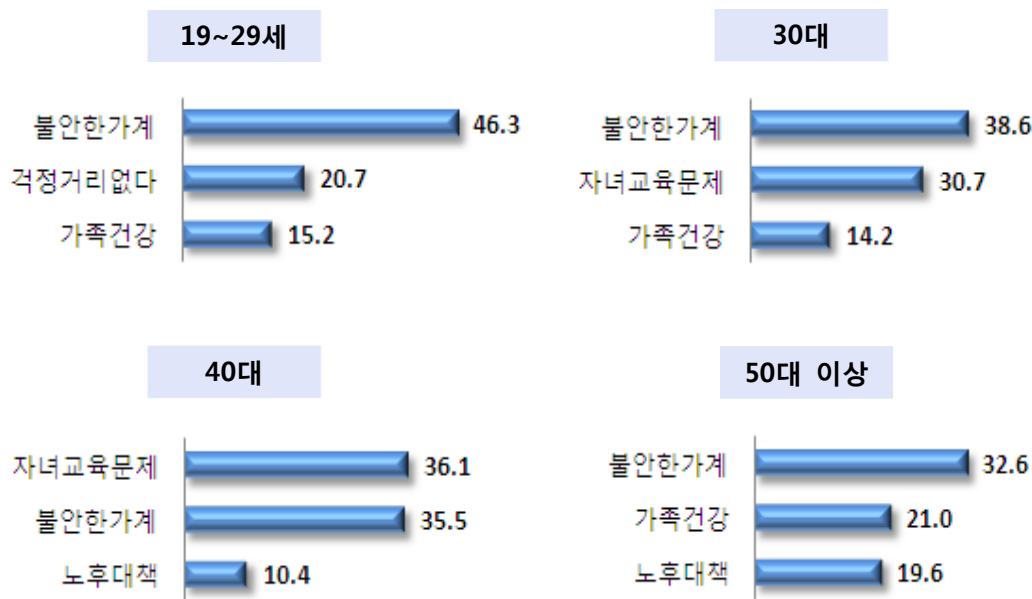
[그림 3] 월평균 가구소득 규모별 가정 내 주요 걱정거리 (단위 : %)



세대별로 보면 19세~29세에서는 가계경제문제를 꼽은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현재 청년실업 문제나 임금삭감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별 다른 걱정거리가 없다는 경우도 20.7%나 되어 가정 문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30대의 경우에도 가계경제를 꼽는 경우(38.6%)가 가장 많았지만 19~29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자녀 교육문제(30.7%)가 큰 걱정거리로 부상한다. 40대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문제(36.1%)가 불안한

가계경제의 문제(35.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설 정도로 대등한 상태이다. 40대부터는 노후대책 문제(10.4%)가 중요한 가정위협문제로 등장한다. 20대나 30대와는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자녀 교육문제를 대신해서 건강문제가 등장하면서 응답비율로는 불안한 가계경제(32.6%), 가족의 건강(21.0%) 그리고 노후대책(19.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연령대별 가정 내 주요 걱정거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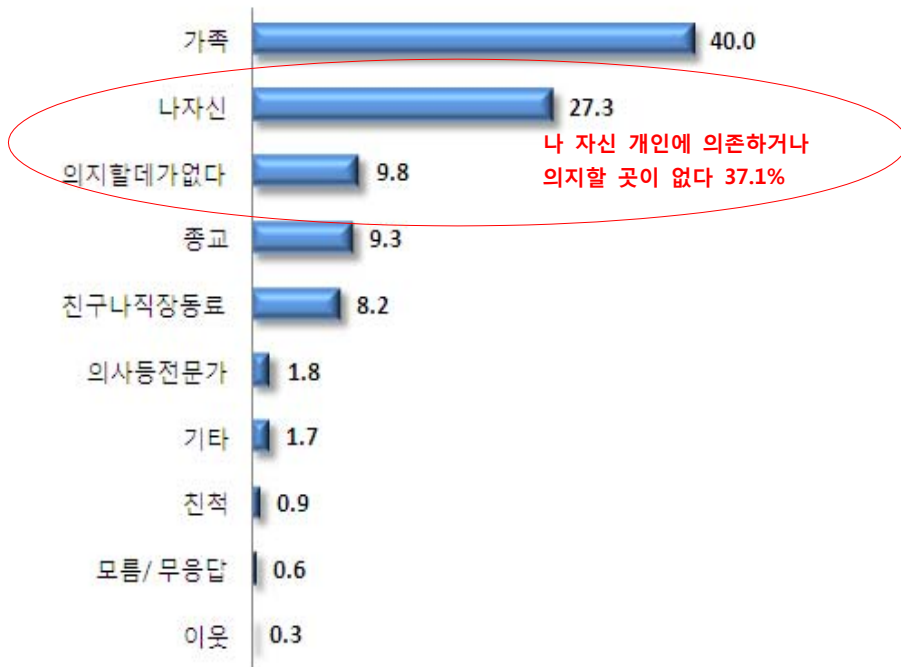
혼인여부 및 가정상태 역시 중요한 변수다. 미혼인 경우에는 가계경제를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고 꼽는 비율이 46.8%였다.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그 뒤를 이어 18.5%였다. 기혼에서는 가계경제와 자녀 교육문제를 꼽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비율은 각각 33.5%와 26.7%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 특징과 유사한데 미혼응답자의 경우 20대가 주축을 이루고, 기혼가정은 30대부터 50대 이상 가정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혼 또는 사별한 결손가정의 경우, 걱정거리는 양상이 달랐다. 가계경제를 꼽는 응답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지만 노후대책을 꼽는 경우도 34.4%나 되었다. 배우자 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 문제해결 시 가족 의존도 40%, 믿고 의지할 곳 없다 37.1%

걱정거리 해소 의지 대상 가족 40.0%, 나 자신 27.3%, 의지할 데가 없다 9.8%
 전문가를 찾는다 1.8%에 불과, 친척 0.9%, 이웃 0.3% 공동체 의존 급감
 저소득층, 50대 이후 장년 층, 남성층일수록 고립감 커
 40~50대, 여성층에서는 종교가 보완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주로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본인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시 외부에 기대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가족이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 의지하는 대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가족’을 꼽았지만 과반수에 못 미치는 40%에 그쳤다. 대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나 자신’을 꼽은 경우가 27.3%였으며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경우도 9.8%나 되었다. 이는 결국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의미로 합하면 37.1%에 달한다. 그 외 종교를 꼽은 경우는 9.3%였고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의존한다는 응답은 8.2%였다. 반면, 친척이나 이웃은 의지할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친척을 꼽은 비율은 불과 0.9%였고 이웃을 꼽은 비율은 0.3%였다. 과거에 개인의 문제해결을 돕던 친척과 같은 혈연공동체, 이웃과 같은 거주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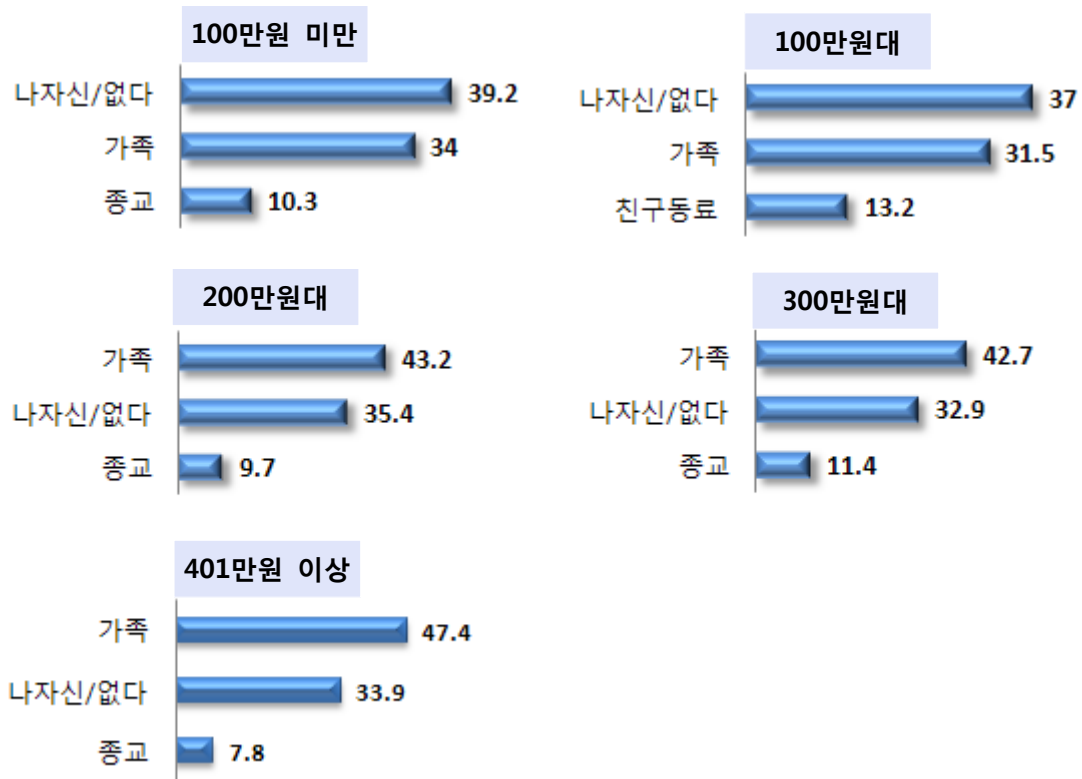
[그림 1]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의지 대상 (단위 : %)



문제는 취약계층에 속할수록 가족조차 가족문제 발생 시 의존할 만한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개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의지할 것이 없다고 답하는 경향에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개인은 사회경제적 우환이 가정의 우환과 겹치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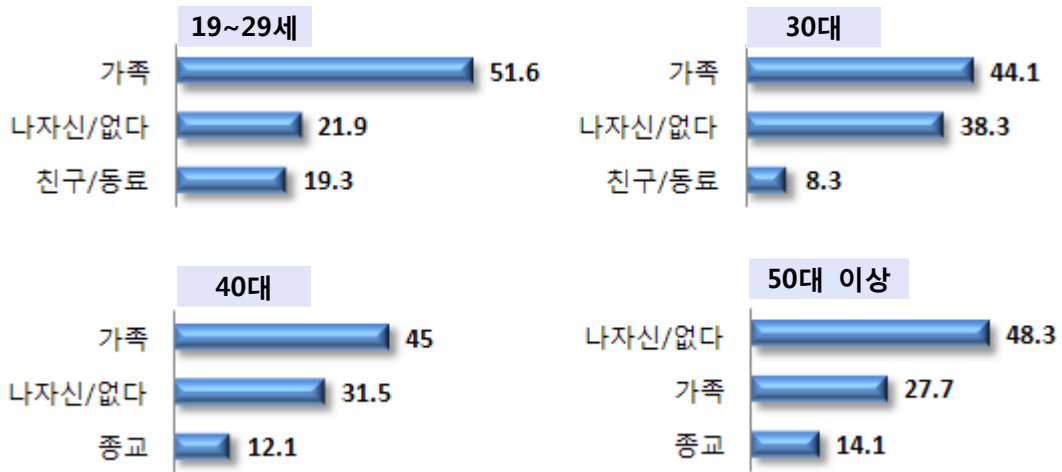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가족문제 발생 시 의지할 곳이 본인 자신이거나 아예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100만원 미만 층에서 39.2%, 101만원~200만원 소득층에서 37.0%였다.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34.0%와 31.5%였다. 반면 200만원 이상의 중간소득층은 물론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가족에 의존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 201~300만원 소득층에서는 가족 의존비율이 43.2%, 301만원~400만원 소득층에서는 42.7%였고, 401만원 이상 상위소득층에서는 47.4%까지 올라간다. 경제적 여유가 생길수록 가족 의존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소득층에서도 기댈 곳이 없는 응답집단이 적지 않았다. 200만원대 소득층에서 35.4%, 300만원 소득층에서 32.9%,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도 33.9%나 된다. 그 외 기댈 곳이라고는 가족밖에 없거나 특별히 기댈 곳이 없는 응답층들은 대체로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림 2] 소득계층별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주요 의지대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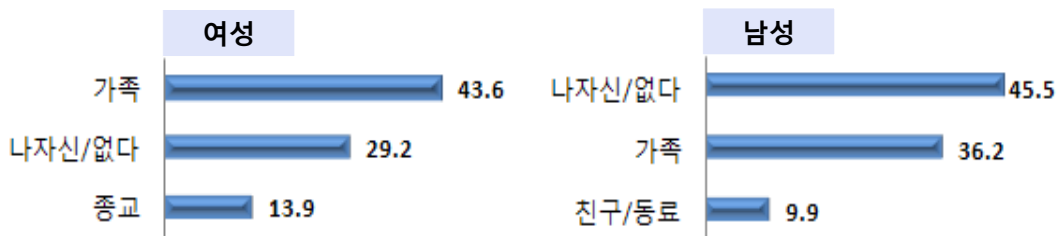
세대별로는 19세~29세의 경우 가족이 51.6%였고 본인 스스로 의지하거나 아예 없다는 응답이 21.9%로 높았다. 친구나 직장동료가 19.3%였다. 30대에서는 역시 가족에 기대거나 본인 말고 크게 기댈 곳 없다는 응답 순이었다. 응답비율은 각각 44.1%와 38.3%였다. 40대에서는 가족이 45.0% 그리고 본인 혹은 아예 기댈 곳 없다는 응답이 31.5%였다. 50대 이상에서는 30대나 40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의지의 대상이 본인 자신이라고 답하거나 없다고 경우가 48.3%로 절반가량이 고립감을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가족 혹은 가족 외에 특별히 의지할 곳이 없을 때 20대~30대의 경우 친구나 직장동료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종교에 기대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 연령대별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주요 의지대상 (단위 : %)



성별로 보면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남성은 본인 자신을 의지 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다고 꼽는 경우가 합해서 45.5%였다.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은 36.2%였다. 남성의 고립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가족에 의지하는 비율이 많았다.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나 자신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응답비율에는 차이가 크다. 여성은 가족을 꼽는 경우가 43.5%로 남성보다 더욱 높아졌지만 본인 자신만을 의지하거나 의지할 곳 없다는 응답은 29.2%로 상대적으로 낮다. 대신 남성의 경우 친구/동료한테 기대다는 응답은 9.9%였지만 사회생활의 비중이 낮은 여성의 경우 종교에 의지하는 비율이 13.9%로 높았다.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주로 남성이 지는 성역할분담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그림4] 성별 가정 내 걱정거리 해소를 위한 주요 의지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가정병리 현상, 사회적 관심과 대책 절실

가족 문제로 인한 병리현상,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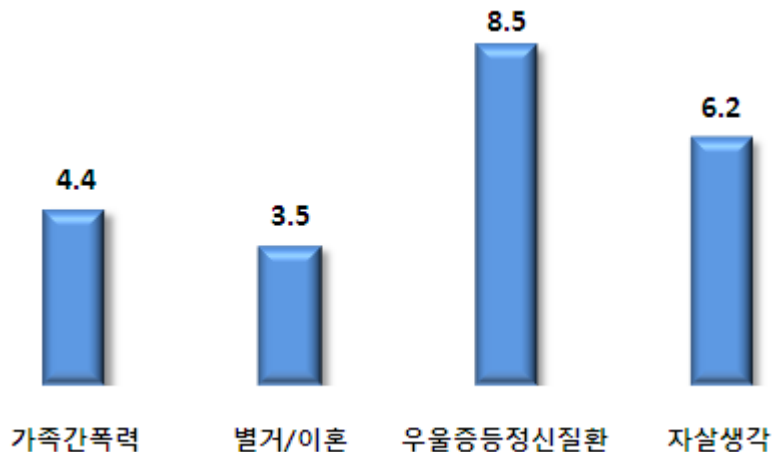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사례 :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8.5%, 자살 충동 6.2%, 가정폭력 4.4%, 별거나 이혼을 경험했다 3.5%

1년 후의 가족 관계 지금보다 좋아질 것 47.3%, 지금과 비슷할 것 47.3%, 지금보다 나빠질 것 4.0%

현재 경제위기는 전사회계층 및 거의 모든 가정에 공통적인 위협요인이 될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나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특성에 따라 그 위협의 체감도와 충격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로 더 주목받고 있는 자살, 우울증, 가정폭력, 가족 해체 등의 극단적인 가정병리현상을 살펴보면 계층별, 가족 특성별로 체감하는 고통의 편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가정병리현상이 특정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취약성이 심각한 집단과 개인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집중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 지난 1년간 경험한 가정 내 문제들을 통해서도 가정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정폭력’, ‘별거/이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살충동’ 등으로 나타나는 가정병리현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가족 내에서 ‘별거나 이혼’은 3.5%였고, ‘가족 간의 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4.4%였다. ‘자살을 생각해보았다’는 경우도 6.2%로 조사되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응답은 8.5%로 나타났다.

[그림 1] 지난 1년간 가정에서 경험한 문제들 (단위 : %)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가정병리현상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고, 저학력층의 취약계층, 세대별로 가정으로부터 고립감이 큰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극단적인 병리현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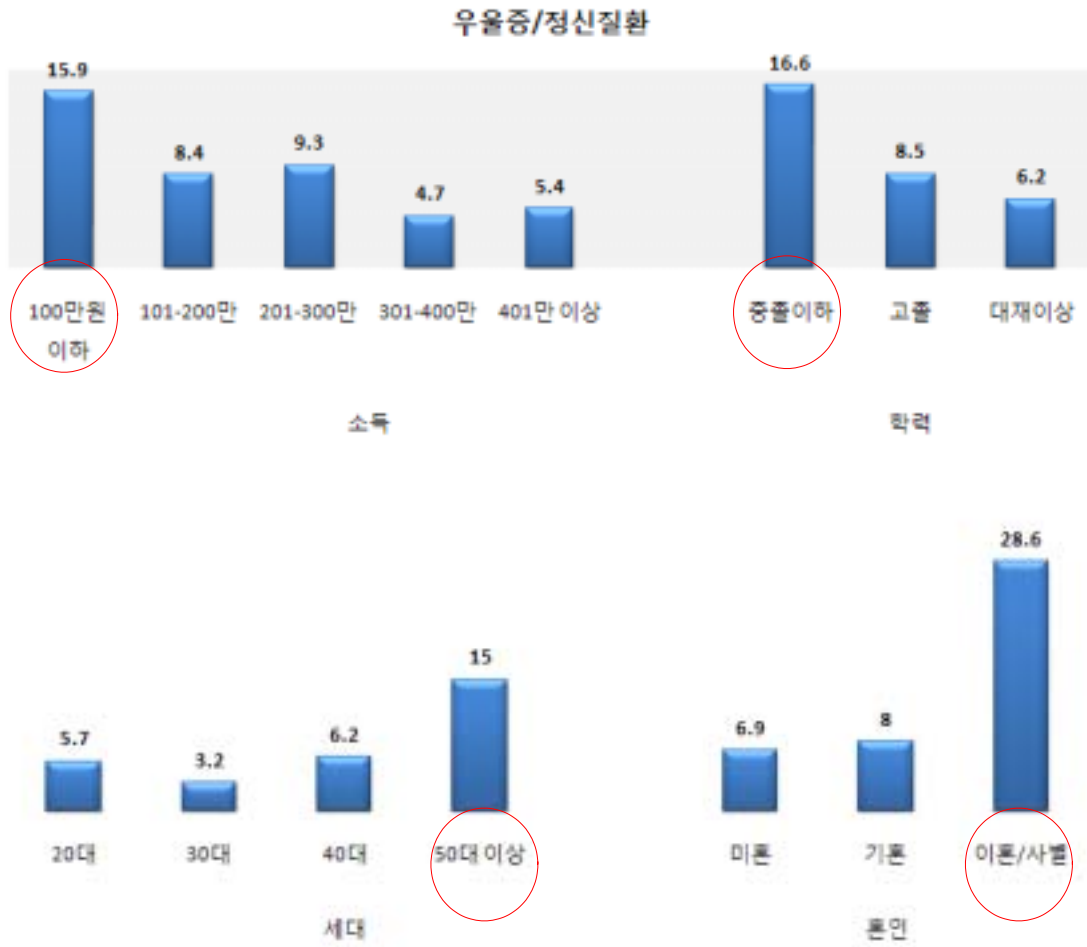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1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에서 15.9%였으며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 16.6%였다.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응답비율이 15.0%나 되었다. 이혼/사별한 경우 우울증/정신질환 경험한 비율이 열 명 중 세 명 꼴이었다. 다른 집단에서 응답비율이 10%에 못미치는 것과 차이가 분명하다.

자살 충동 역시 경향성을 달리하지 않았다. 100만원 이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16.3%가 경험하였다고 답했다. 중졸 이하의 학력층에서 10.8%였다. 전체 응답비율이 6.2%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응답비율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10.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혼/사별한 가정에서는 무려 19.4%나 자살충동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의 경험빈도를 살펴보면 역시 1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에서 16.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졸 저학력층에서는 12.0%였다. 대재이상 층에서 2.4%에 그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족 간의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응답비율이 7.0%로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높았다. 다만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결손가정 응답자 중에서는 가정 폭력 경험했다는 응답이 3.0%로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혼이나 별거 경험을 보면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빈곤층에서 4%로서 크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 층에서 6.4%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은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지난 1년간 가족 내 우울증/정신질환 경험 (%)



[그림3] 지난 1년간 가족 내 자살충동경험 (%)



[그림4] 지난 1년간 가족 내 가족폭력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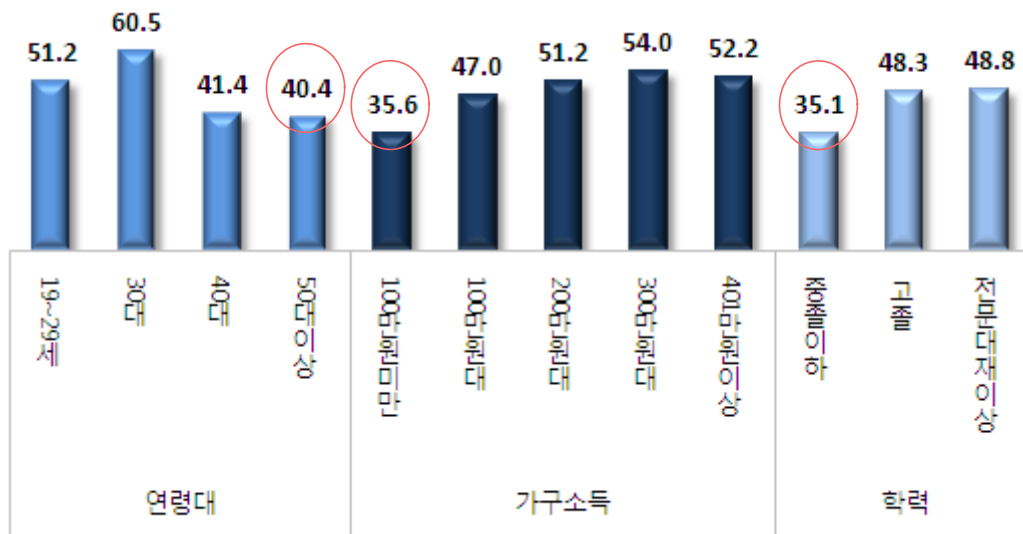
[그림5] 지난 1년간 가족 내 별거/이혼 경험 (%)



조사결과가 더욱 씩씩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들 취약계층의 경우 현재의 가정 병리현상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미래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에서도 비관적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1년 후에 가족 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47.3%였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51.3%였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4.0%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취약계층의 응답자들은 미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40.4%로 20대 51.2%, 30대의 60.5%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여준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가정생활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35.6%에 불과했지만 300만원대 소득층은 54.0%,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52.2%와 대비된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의 학력계층에서는 35.1%만이 1년 후 가정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재이상의 층에서 48.8%에 달했다.

[그림 6] 연령·소득·학력별 1년 가족관계 전망 (단위 : %)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은 현재의 가정생활에서도 보다 심각한 문제를 겪을 뿐 아니라 자살이나 우울증/정신질환과 같은 심각한 가정병리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위기상황은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가 개인 인생의 비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집중되고 있을 때 이를 도외시 할 경우 이들이 느낄 사

회적 상실감과 절망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적, 거시적 차원의 위기대책 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과 가정의 위기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하다. ☒

[조사개요]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5\%$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11.7%
조사기간	● 2009년 4월 1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응답자 분포표

Base=전체	사례수 (명)	%
■ 전 체 ■	(800)	100.0
○성남여	(395)	49.4
	(405)	50.6
○연 19 - 29	(164)	20.5
30	(177)	22.1
40	(181)	22.7
50 대 이 상	(277)	34.6
○학종고졸 이	(112)	14.0
전문대 재학 이	(263)	32.9
모름 / 무응답	(390)	48.8
	(35)	4.3
○직 농 / 임 / 어	(27)	3.4
자 판매/영업/서비스	(105)	13.2
생산/기능/노무	(81)	10.2
사무/관리/전	(115)	14.3
주 학 부	(155)	19.4
무 직/기타/무응답	(184)	22.9
	(74)	9.3
	(59)	7.3
○가 구 소 득	(89)	11.2
100 만 원 이 하	(150)	18.7
101 - 200 만 원	(166)	20.8
201 - 300 만 원	(113)	14.1
301 - 400 만 원	(210)	26.2
401 만 원 이 상	(73)	9.1
기 타 / 무응답		
○권 서 인 대 광 대 부 강	(170)	21.2
천 전 주 구 산 / 원	(220)	27.5
/ / / / /	(80)	10.1
/ / / / /	(83)	10.4
/ / / / /	(84)	10.5
을 산 / 제	(128)	16.1
/ / /	(33)	4.2
○흔 미 기 이 모	(206)	25.7
인 상 태	(556)	69.5
이 혼 / 사	(32)	4.0
모름 / 무응답	(7)	.9
○계 총 인 식	(83)	10.3
상 위 산 계	(359)	44.9
하 위 산 계	(345)	43.1
모름 / 무응답	(13)	1.7
○국 정 문 영 평 가	(272)	34.0
부 정 평 가	(502)	62.8
모름 / 무응답	(25)	3.2
○이 진 중 보 도	(210)	26.3
념 성 향	(324)	40.5
보 도 수	(244)	30.4
모름 / 무응답	(22)	2.8
○정 당 지 지 도	(276)	34.5
한 나 주 라	(118)	14.7
자 유 주 권 진 보	(25)	3.1
민 주 노 복	(54)	6.8
창 조 소 보 신	(14)	1.8
진 기 보 신	(23)	2.9
기 지	(17)	2.1
지 지	(250)	31.2
모름 / 무응답	(22)	2.8

[표 9]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의지하는 대상

[문20]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로 누구에게 의지 하십니까?

Base=가정 내 걱정거리가 있다고 답한 자	사례수 (명)	의지할 대상	나자신 %	가족 %	친척 %	이웃 %	친구나 지장동 료 %	의사등 전문가 %	종교 %	기타 %	모 응답 %	계 %
		%										
■전 체	(707)	9.8	27.3	40.0	.9	.3	8.2	1.8	9.3	1.7	.6	100.0
○성별	(347)	10.4	35.1	36.2	.9	.0	9.9	1.1	4.6	1.4	.4	100.0
여	(360)	9.3	19.9	43.6	.9	.5	6.5	2.6	13.9	2.1	.7	100.0
○연령	(130)	4.1	17.8	51.6	.5	.0	19.3	2.2	1.6	3.0	.0	100.0
19 - 29	(164)	10.5	27.8	44.1	.9	1.2	8.3	1.2	5.4	.6	.0	100.0
30 - 40	(167)	9.9	21.6	45.0	1.7	.0	7.2	.5	12.1	1.5	.5	100.0
40 - 50	(246)	12.4	35.9	27.7	.6	.0	2.9	3.0	14.1	2.0	1.3	100.0
○학력	(98)	10.1	33.2	35.0	1.5	.0	3.9	2.7	11.3	1.8	.7	100.0
초	(249)	15.2	23.8	33.8	1.3	.0	10.2	.6	11.8	3.0	.2	100.0
중	(331)	6.4	27.7	46.0	.5	.6	8.4	2.7	6.2	.9	.5	100.0
고	(30)	2.0	33.4	41.5	.0	.0	2.2	.0	16.4	.9	3.7	100.0
○직업	(24)	15.2	29.1	31.6	4.3	.0	4.3	3.6	8.6	3.3	.0	100.0
주방 / 임 / 여	(94)	11.8	34.7	32.7	.0	.0	4.3	.0	12.6	3.1	.9	100.0
판매/영업/서비스	(76)	8.1	35.9	35.5	.0	.0	6.8	.0	9.1	4.6	.0	100.0
생산/기능/노무	(107)	15.7	27.8	34.1	1.7	.0	15.8	.0	2.8	2.0	.0	100.0
사무/관리/전문	(137)	12.2	28.1	39.9	.8	.0	8.3	4.3	5.1	.6	.6	100.0
주부	(167)	4.8	19.2	47.6	.9	1.2	4.4	1.7	18.5	1.1	.7	100.0
학생	(57)	.0	20.8	51.9	1.1	.0	19.7	2.8	3.6	.0	.0	100.0
무직/기타/무응답	(46)	15.8	31.5	38.2	.9	.0	1.6	3.9	4.8	.6	2.8	100.0
○가구	(85)	19.4	29.8	34.0	.0	.0	3.7	1.0	10.3	.9	.8	100.0
100만 원 이하	(135)	5.6	31.4	31.5	2.1	.7	13.2	1.7	9.4	4.3	.0	100.0
101 - 200만 원	(146)	10.4	25.0	43.2	1.0	.0	7.3	1.7	9.7	1.8	.0	100.0
201 - 300만 원	(103)	10.3	22.6	42.7	2.0	.0	7.9	1.2	11.4	1.1	.8	100.0
301 - 400만 원	(181)	7.7	26.2	47.4	.0	.0	7.4	1.9	7.8	1.0	.5	100.0
401만 원 이상	(58)	10.1	32.3	32.3	.0	1.7	8.0	4.9	7.8	.0	2.9	100.0
○권장	(151)	11.7	29.2	40.0	1.9	.0	4.8	2.8	7.1	2.1	.4	100.0
인전 / 강	(193)	7.9	24.0	40.8	.6	1.0	10.5	.4	11.5	2.9	.4	100.0
대전주 / 강	(74)	12.6	34.8	31.9	.0	.0	6.1	4.3	8.1	2.2	.0	100.0
대구 / 강	(75)	5.0	33.0	37.9	.0	.0	2.7	4.7	16.7	.0	.0	100.0
부산 / 강	(74)	12.6	26.6	36.3	1.4	.0	10.2	.8	8.6	.0	3.6	100.0
강원 / 제	(109)	13.2	19.6	46.1	1.3	.0	13.8	.5	4.7	.8	.0	100.0
강원 / 제	(31)	.0	36.5	46.4	.0	.0	4.0	.0	9.7	3.4	.0	100.0
○휴미	(167)	3.6	20.0	53.9	1.0	.0	16.5	2.1	2.0	.8	.0	100.0
기인 / 사	(503)	11.1	28.3	37.3	.9	.4	5.9	1.9	11.3	2.2	.8	100.0
이대 / 무	(30)	21.9	54.4	15.4	.0	.0	2.3	.0	6.0	.0	.0	100.0
대무 / 무	(7)	18.0	17.4	10.2	.0	.0	.0	.0	54.4	.0	.0	100.0
○계산	(64)	4.3	37.4	39.5	1.0	.0	6.4	1.3	7.1	3.0	.0	100.0
위위 / 산	(316)	6.9	25.5	43.2	.5	.3	9.5	2.8	9.6	1.1	.5	100.0
대위 / 무	(316)	13.1	27.1	38.0	1.4	.3	7.5	1.1	8.9	2.1	.5	100.0
대무 / 무	(11)	31.8	28.7	6.5	.0	.0	.0	.0	26.7	.0	6.4	100.0
○구정	(234)	9.9	31.5	33.7	.9	.0	3.9	1.7	15.7	1.3	1.4	100.0
부정 / 무	(448)	9.2	24.9	44.1	1.0	.4	10.5	1.7	6.1	1.9	.2	100.0
대정 / 무	(25)	22.0	32.0	24.3	.0	.0	7.5	4.8	6.4	3.1	.0	100.0
○이대	(187)	9.2	26.4	44.8	.6	1.0	7.8	.8	7.0	2.0	.3	100.0
대대 / 무	(286)	10.8	24.0	40.4	1.0	.0	9.6	3.2	8.6	2.0	.3	100.0
대대 / 무	(216)	8.1	32.3	37.2	1.2	.0	6.6	.7	12.3	1.2	.4	100.0
대대 / 무	(18)	22.3	31.1	16.5	.0	.0	7.0	4.7	8.8	.0	9.7	100.0
○정당	(244)	7.7	28.3	37.4	1.8	.4	6.0	2.1	14.5	.9	1.1	100.0
한나 / 주	(106)	10.3	20.0	45.7	.0	.0	11.3	.7	9.4	2.6	.0	100.0
민주 / 선	(22)	.0	35.0	47.3	.0	.0	17.7	.0	.0	.0	.0	100.0
민주 / 선	(50)	4.4	31.0	45.2	2.1	.0	9.2	.0	6.0	2.1	.0	100.0
민주 / 선	(14)	.0	12.1	42.9	7.2	.0	29.3	.0	8.4	.0	.0	100.0
민주 / 선	(20)	3.9	35.2	35.2	.0	4.9	12.5	4.0	4.2	.0	.0	100.0
민주 / 선	(15)	8.5	5.1	69.6	.0	.0	.0	5.6	4.6	6.6	.0	100.0
민주 / 선	(215)	15.4	30.9	36.9	.0	.0	5.7	1.7	6.6	2.4	.4	100.0
민주 / 선	(21)	12.1	19.1	34.2	.0	.0	17.7	9.6	4.0	.0	3.3	100.0

[표 10] 지난 1년 동안 경험 여부 - 가족 간의 폭력

[문21-1] _____님이나 _____님의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가족간의 폭력

Base=전체	사례수 (명)	경험해본 적이있다	경험해본 적이없다	계
		%	%	
전체	(800)	4.4	95.6	100.0
성별	(395)	4.3	95.7	100.0
여	(405)	4.5	95.5	100.0
연령	(164)	3.0	97.0	100.0
19 - 29	(177)	1.2	98.8	100.0
30 - 40	(181)	4.9	95.1	100.0
40 - 50	(277)	7.0	93.0	100.0
학력	(112)	12.0	88.0	100.0
중졸 이하	(263)	3.7	96.3	100.0
고졸 이상	(390)	2.4	97.6	100.0
전문대졸	(35)	7.0	93.0	100.0
무응답				
직종	(27)	10.9	89.1	100.0
농/임/어업	(105)	7.1	92.9	100.0
판매/영업/서비스	(81)	4.0	96.0	100.0
생산/기능/노무	(115)	5.0	95.0	100.0
사무/관리/전문	(155)	1.3	98.7	100.0
주부	(184)	4.5	95.5	100.0
학생	(74)	3.6	96.4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5.0	95.0	100.0
가구소득	(89)	8.7	91.3	100.0
100만 원 이하	(150)	6.0	94.0	100.0
101 - 200만 원	(166)	2.7	97.3	100.0
201 - 300만 원	(113)	1.2	98.8	100.0
301 - 400만 원	(210)	3.8	96.2	100.0
401만 원 이상	(73)	6.6	93.4	100.0
기타/무응답				
권선인	(170)	4.2	95.8	100.0
천전 / 경	(220)	5.0	95.0	100.0
대주 / 충	(80)	2.5	97.5	100.0
광주 / 전	(83)	4.3	95.7	100.0
대구 / 경	(84)	5.8	94.2	100.0
부산 / 울	(128)	4.0	96.0	100.0
강원 / 산 / 제	(33)	4.5	95.5	100.0
혼인상태	(206)	2.4	97.6	100.0
미혼	(556)	5.3	94.7	100.0
이혼 / 사	(32)	3.0	97.0	100.0
모름 / 무응답	(7)	.0	100.0	100.0
계상중위	(83)	7.1	92.9	100.0
중위 산	(359)	4.2	95.8	100.0
하위 계	(345)	3.8	96.2	100.0
모름 / 무응답	(13)	9.4	90.6	100.0
국립	(272)	6.3	93.7	100.0
이정	(502)	3.3	96.7	100.0
모름 / 무응답	(25)	5.1	94.9	100.0
이념성향	(210)	4.4	95.6	100.0
진보	(324)	4.7	95.3	100.0
보수	(244)	4.1	95.9	100.0
모름 / 무응답	(22)	3.5	96.5	100.0
정당지지	(276)	5.1	94.9	100.0
한민	(118)	4.5	95.5	100.0
자유	(25)	.0	100.0	100.0
민주	(54)	5.1	94.9	100.0
창조	(14)	5.4	94.6	100.0
진보	(23)	.0	100.0	100.0
신	(17)	4.6	95.4	100.0
지지	(250)	4.3	95.7	100.0
모름 / 무응답	(22)	2.5	97.5	100.0

[표 11] 지난 1년 동안 경험 여부 - 별거나 이혼

[문21-2] _____님이냐 _____님의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 별거나 이혼

Base=전체	사례수 (명)	경험해본 적이있다	경험해본 적이없다	계
		%	%	
전체	(800)	3.5	96.5	100.0
○성남여	(395)	4.8	95.2	100.0
○연령	(405)	2.1	97.9	100.0
○19 - 29세	(164)	.0	100.0	100.0
○30 - 40대	(177)	3.2	96.8	100.0
○40 - 50대	(181)	2.9	97.1	100.0
○50대 이상	(277)	6.0	94.0	100.0
○학종졸이	(112)	6.4	93.6	100.0
○고졸	(263)	3.3	96.7	100.0
○전문대재학이	(390)	2.9	97.1	100.0
○모름/무응답	(35)	1.4	98.6	100.0
○직종/임/어	(27)	3.0	97.0	100.0
○자영업	(105)	6.0	94.0	100.0
○판매/영업/서비스	(81)	2.4	97.6	100.0
○생산/기능/노무	(115)	9.8	90.2	100.0
○사무/관리/전문	(155)	1.4	98.6	100.0
○주부	(184)	2.0	98.0	100.0
○학생	(74)	.0	100.0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2.6	97.4	100.0
○가구소득	(89)	4.0	96.0	100.0
○100만 원 이하	(150)	2.7	97.3	100.0
○101 - 200만 원	(166)	7.0	93.0	100.0
○201 - 300만 원	(113)	2.5	97.5	100.0
○301 - 400만 원	(210)	.9	99.1	100.0
○401만 원 이상	(73)	5.1	94.9	100.0
○권서인	(170)	4.8	95.2	100.0
○대전/광주/부산/강원	(220)	3.3	96.7	100.0
○경북/충청/전라/제주	(80)	1.7	98.3	100.0
○울산/경남/제주	(83)	3.3	96.7	100.0
○서울/경기/충청/전라/제주	(84)	2.8	97.2	100.0
○울산/경남/제주	(128)	2.6	97.4	100.0
○강원/제주	(33)	7.3	92.7	100.0
○혼인상태	(206)	.0	100.0	100.0
○미혼	(556)	2.6	97.4	100.0
○이혼	(32)	40.9	59.1	100.0
○모름/무응답	(7)	7.2	92.8	100.0
○계상중위	(83)	3.9	96.1	100.0
○상위	(359)	4.1	95.9	100.0
○하위	(345)	2.6	97.4	100.0
○모름/무응답	(13)	3.6	96.4	100.0
○코이정	(272)	5.7	94.3	100.0
○이정	(502)	2.1	97.9	100.0
○모름/무응답	(25)	7.1	92.9	100.0
○이념성향	(210)	4.9	95.1	100.0
○진보	(324)	3.2	96.8	100.0
○보수	(244)	2.5	97.5	100.0
○모름/무응답	(22)	4.8	95.2	100.0
○정당지지	(276)	3.3	96.7	100.0
○한민자유선진	(118)	4.9	95.1	100.0
○국민의당	(25)	3.4	96.6	100.0
○자유민주연합	(54)	.0	100.0	100.0
○창조경제혁신	(14)	.0	100.0	100.0
○진보신당	(23)	.0	100.0	100.0
○지지	(17)	.0	100.0	100.0
○모름/무응답	(250)	3.9	96.1	100.0
○정당지지	(22)	10.2	89.8	100.0

[표 12] 지난 1년 동안 경험 여부 -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문21-3] _____님의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3.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Base=전체	사례수 (명)	경험해본 적이있다	경험해본 적이없다	무응답	계
		%	%	%	%
전체	(800)	8.5	91.4	.2	100.0
○성별	(395)	6.6	93.3	.1	100.0
남자	(405)	10.3	89.5	.3	100.0
○연령	(164)	5.7	94.3	.0	100.0
19 - 29세	(177)	3.2	96.8	.0	100.0
30 - 40대	(181)	6.2	93.8	.0	100.0
40 - 50대 이상	(277)	15.0	84.6	.5	100.0
○학력	(112)	16.6	83.1	.3	100.0
중고졸 이하	(263)	8.5	91.2	.4	100.0
전문대 재학 이상	(390)	6.2	93.8	.0	100.0
모름 / 무응답	(35)	7.3	92.7	.0	100.0
○직업	(27)	7.6	92.4	.0	100.0
노동 / 임 / 여	(105)	6.4	93.6	.0	100.0
판매 / 영업 / 서비스	(81)	7.9	92.1	.0	100.0
생산 / 기능 / 노무	(115)	8.9	91.1	.0	100.0
사무 / 관리 / 전문	(155)	5.6	94.4	.0	100.0
주학	(184)	9.2	90.2	.6	100.0
무직 / 기타 / 무응답	(74)	9.1	90.9	.0	100.0
(59)	(59)	16.8	82.6	.6	100.0
○가구 소득	(89)	15.9	83.7	.4	100.0
100만 원 이하	(150)	8.4	91.6	.0	100.0
101 - 200만 원	(166)	9.3	90.7	.0	100.0
201 - 300만 원	(113)	4.7	94.3	.9	100.0
301 - 400만 원	(210)	5.4	94.6	.0	100.0
401만 원 이상	(73)	12.1	87.9	.0	100.0
○권선	(170)	8.1	91.9	.0	100.0
서인천 / / /	(220)	7.9	91.6	.5	100.0
대전주광대부강	(80)	5.8	93.8	.4	100.0
구 / / /	(83)	15.2	84.8	.0	100.0
대부강	(84)	8.8	91.2	.0	100.0
부강	(128)	6.6	93.4	.0	100.0
강원	(33)	9.7	90.3	.0	100.0
○휴미	(206)	6.9	93.1	.0	100.0
미기	(556)	8.0	91.8	.2	100.0
이름 / 무응답	(32)	28.6	71.4	.0	100.0
(7)	(7)	.0	100.0	.0	100.0
○계산	(83)	9.3	90.7	.0	100.0
상위 계	(359)	9.0	90.8	.3	100.0
중하위 계	(345)	8.0	91.9	.1	100.0
모름 / 무응답	(13)	2.6	97.4	.0	100.0
○국정	(272)	9.3	90.3	.4	100.0
부정	(502)	7.8	92.1	.1	100.0
모름 / 무응답	(25)	12.5	87.5	.0	100.0
○이념	(210)	9.6	90.2	.2	100.0
진보	(324)	8.1	91.6	.3	100.0
보수	(244)	7.2	92.8	.0	100.0
모름 / 무응답	(22)	17.1	82.9	.0	100.0
○정당	(276)	9.8	89.9	.4	100.0
한민	(118)	7.5	92.2	.3	100.0
자유	(25)	4.7	95.3	.0	100.0
민주	(54)	3.7	96.3	.0	100.0
진보	(14)	13.7	86.3	.0	100.0
신선	(23)	3.5	96.5	.0	100.0
기타	(17)	4.6	95.4	.0	100.0
지지	(250)	9.1	90.9	.0	100.0
모름 / 무응답	(22)	10.5	89.5	.0	100.0

[표 13] 지난 1년 동안 경험 여부 - 자살 생각

[문21-4] _____님이냐 _____님의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4. 자살 생각

Base=전체	사례수 (명)	경험해본 적이있다	경험해본 적이없다	무응답	계
		%	%	%	%
전체	(800)	6.2	93.4	.4	100.0
○성남여	(395)	4.5	94.8	.8	100.0
○연령	(405)	8.0	92.0	.0	100.0
○19 - 29	(164)	5.7	93.9	.5	100.0
○30 - 40	(177)	1.5	98.5	.0	100.0
○40 - 50	(181)	4.6	94.9	.5	100.0
○50대 이상	(277)	10.7	88.8	.5	100.0
○학종졸이	(112)	10.8	88.1	1.1	100.0
○고졸이	(263)	9.6	90.3	.2	100.0
○전문대재학이	(390)	2.9	96.8	.4	100.0
○모름/무응답	(35)	4.0	96.0	.0	100.0
○직종/임/어	(27)	10.2	88.0	1.7	100.0
○자판매/영업/서비스	(105)	5.2	94.0	.8	100.0
○생산/기능/노무	(81)	10.1	89.9	.0	100.0
○사무/관리/전무	(115)	5.0	95.0	.0	100.0
○주학	(155)	3.3	96.7	.0	100.0
○무직/기타/무응답	(184)	7.2	92.8	.0	100.0
	(74)	7.3	91.6	1.1	100.0
	(59)	7.0	91.4	1.6	100.0
○가구소	(89)	16.3	82.8	.9	100.0
○100만원이하	(150)	5.9	94.1	.0	100.0
○101 - 200만원	(166)	4.2	95.4	.4	100.0
○201 - 300만원	(113)	3.9	96.1	.0	100.0
○301 - 400만원	(210)	2.3	97.3	.4	100.0
○401만원이상	(73)	14.4	84.5	1.1	100.0
○권선인	(170)	6.7	92.5	.8	100.0
○대전/충청/경북	(220)	6.8	92.8	.4	100.0
○대전/충청/경북	(80)	4.2	95.3	.4	100.0
○대전/충청/경북	(83)	9.9	90.1	.0	100.0
○대전/충청/경북	(84)	5.1	94.9	.0	100.0
○대전/충청/경북	(128)	5.3	94.7	.0	100.0
○대전/충청/경북	(33)	2.4	96.2	1.4	100.0
○휴미인상	(206)	5.2	94.2	.6	100.0
○미인상	(556)	6.0	93.7	.3	100.0
○모름/무응답	(32)	19.4	80.6	.0	100.0
	(7)	.0	100.0	.0	100.0
○계총인	(83)	6.4	92.5	1.1	100.0
○상위계	(359)	4.9	95.1	.0	100.0
○중하위계	(345)	7.9	91.5	.6	100.0
○모름/무응답	(13)	.0	100.0	.0	100.0
○국정문영평	(272)	6.1	93.2	.7	100.0
○부정문영평	(502)	5.9	93.9	.2	100.0
○모름/무응답	(25)	14.8	85.2	.0	100.0
○이년상향	(210)	8.6	90.2	1.2	100.0
○전년상향	(324)	4.8	95.2	.0	100.0
○모름/무응답	(244)	6.0	93.8	.2	100.0
	(22)	8.9	91.1	.0	100.0
○정당지지도	(276)	7.0	92.8	.2	100.0
○한민자유선진	(118)	5.1	93.5	1.4	100.0
○자유선진	(25)	6.0	94.0	.0	100.0
○창조한국당	(54)	2.2	97.8	.0	100.0
○진보당	(14)	.0	100.0	.0	100.0
○기타	(23)	8.3	91.7	.0	100.0
○지지	(17)	.0	100.0	.0	100.0
○모름/무응답	(250)	8.0	91.7	.3	100.0
	(22)	.0	100.0	.0	100.0

[표 14] 가정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문22] __님께서 가정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Base=전체	사례수 (명)	①매우만족한다	②대체로만족한다	①+②	③별로만족하지않는다	④전혀만족하지않는다	③+④	모름/응답 %	계
		%	%	%	%	%	%		
■전체	(800)	25.9	61.8	87.8	10.7	1.0	11.7	.5	100.0
○성별	(395)	29.0	59.6	88.6	10.3	.7	10.9	.4	100.0
○연령	(405)	23.0	64.0	86.9	11.1	1.4	12.5	.5	100.0
○19 - 29세	(164)	32.5	53.8	86.3	12.5	1.2	13.7	.0	100.0
○30 - 40대	(177)	28.8	62.3	91.1	8.7	.2	8.9	.0	100.0
○40 - 50대	(181)	30.2	61.3	91.5	7.1	1.0	8.1	.5	100.0
○이대 이상	(277)	17.4	66.7	84.1	13.3	1.5	14.8	1.1	100.0
○학력	(112)	12.1	65.2	77.3	15.5	4.4	19.9	2.8	100.0
○고졸	(263)	23.9	64.4	88.3	10.9	.5	11.4	.3	100.0
○대졸	(390)	31.4	58.5	90.0	9.5	.5	10.0	.0	100.0
○무응답	(35)	24.5	68.5	93.0	7.0	.0	7.0	.0	100.0
○직업	(27)	14.3	70.6	84.9	11.9	.0	11.9	3.3	100.0
○자영업/임/어	(105)	26.1	62.5	88.7	9.5	1.0	10.5	.8	100.0
○판매/영업/서비스	(81)	25.8	59.8	85.7	12.8	1.6	14.3	.0	100.0
○생산/기능/노무	(115)	22.6	67.4	90.1	6.4	3.5	9.9	.0	100.0
○사무/관리/전문	(155)	30.9	62.9	93.8	6.2	.0	6.2	.0	100.0
○주부	(184)	23.8	60.8	84.6	14.2	.0	14.2	1.2	100.0
○학생	(74)	29.9	60.5	90.3	8.8	.9	9.7	.0	100.0
○무직/기타/무응답	(59)	26.0	50.6	76.6	21.3	2.1	23.4	.0	100.0
○가구소득	(89)	11.3	65.5	76.8	15.2	5.5	20.7	2.5	100.0
○100만 원 이하	(150)	22.2	62.0	84.2	15.2	.7	15.8	.0	100.0
○101 - 200만 원	(166)	22.7	65.1	87.8	10.9	.8	11.7	.5	100.0
○201 - 300만 원	(113)	31.9	61.7	93.6	6.4	.0	6.4	.0	100.0
○301 - 400만 원	(210)	35.5	57.9	93.4	5.8	.3	6.1	.4	100.0
○401만 원 이상	(73)	22.1	61.1	83.2	16.3	.5	16.8	.0	100.0
○권역	(170)	25.9	60.6	86.5	11.4	1.1	12.4	1.0	100.0
○인천	(220)	24.8	61.9	86.7	12.0	1.3	13.3	.0	100.0
○대전	(80)	27.4	62.2	89.6	10.0	.4	10.4	.0	100.0
○대구	(83)	27.3	60.0	87.3	8.8	1.2	10.0	2.7	100.0
○대전	(84)	27.4	61.8	89.2	10.8	.0	10.8	.0	100.0
○부산	(128)	28.6	62.1	90.7	7.6	1.7	9.3	.0	100.0
○강원	(33)	12.6	70.5	83.2	16.8	.0	16.8	.0	100.0
○휴먼상	(206)	29.0	58.7	87.7	11.2	1.1	12.3	.0	100.0
○미인상	(556)	25.9	62.7	88.5	9.8	.9	10.7	.7	100.0
○이대	(32)	2.3	69.7	72.1	25.2	2.8	27.9	.0	100.0
○무응답	(7)	47.6	52.4	100.0	.0	.0	.0	.0	100.0
○계산	(83)	42.7	48.2	90.9	7.8	1.2	9.1	.0	100.0
○계산	(359)	26.1	65.6	91.7	7.5	.5	8.0	.2	100.0
○무응답	(345)	21.3	61.8	83.1	15.2	.8	16.0	.9	100.0
○무응답	(13)	36.3	44.6	80.9	.0	19.1	19.1	.0	100.0
○국정	(272)	28.4	58.6	87.0	10.9	1.5	12.4	.6	100.0
○국정	(502)	24.6	63.9	88.6	10.1	.8	11.0	.4	100.0
○무응답	(25)	25.0	55.3	80.3	19.7	.0	19.7	.0	100.0
○이념	(210)	24.4	66.5	90.8	8.5	.0	8.5	.7	100.0
○이념	(324)	26.1	62.3	88.4	10.1	1.2	11.4	.3	100.0
○무응답	(244)	27.7	58.3	86.0	12.6	.7	13.3	.7	100.0
○무응답	(22)	18.7	50.3	69.0	19.5	11.5	31.0	.0	100.0
○정당	(276)	26.3	59.8	86.1	11.4	1.6	13.1	.8	100.0
○정당	(118)	29.3	56.3	85.6	11.3	2.4	13.7	.7	100.0
○정당	(25)	21.5	69.1	90.6	9.4	.0	9.4	.0	100.0
○정당	(54)	35.7	61.3	97.0	3.0	.0	3.0	.0	100.0
○정당	(14)	16.7	68.9	85.6	14.4	.0	14.4	.0	100.0
○정당	(23)	33.7	52.2	85.9	14.1	.0	14.1	.0	100.0
○정당	(17)	38.6	61.4	100.0	.0	.0	.0	.0	100.0
○정당	(250)	22.2	66.2	88.4	11.5	.1	11.6	.0	100.0
○정당	(22)	15.4	65.7	81.1	12.8	2.3	15.1	3.8	100.0

[표 15] 향후 1년 후 가족관계 전망

[문23] 앞으로 1년 후에 가족 관계는 어떠할 것으로 보시나요?

Base=전체	사례수 (명)	지금보다 좋아질것 이다	지금과비 슷할것 이다	지금보다 나빠질것 이다	모 응 답	계
		%	%	%		
전 체	(800)	47.3	47.3	4.0	1.4	100.0
성 별	(395)	51.9	42.3	4.5	1.2	100.0
연 령	(405)	42.8	52.3	3.4	1.5	100.0
19 - 29 세	(164)	50.9	45.9	3.2	.0	100.0
30 - 40 대	(177)	60.6	37.7	1.1	.6	100.0
40 - 50 대	(181)	41.5	52.0	5.9	.6	100.0
50 대 이 상	(277)	40.5	51.3	4.9	3.2	100.0
학 령	(112)	35.2	50.3	8.8	5.7	100.0
고 졸 이 하	(263)	48.3	48.1	3.2	.4	100.0
문 대 재 학 이 상	(390)	48.8	47.7	3.1	.4	100.0
모 름 / 무 응 답	(35)	62.8	28.0	3.2	6.0	100.0
직 업	(27)	56.8	35.9	7.3	.0	100.0
농 / 임 / 어	(105)	40.7	50.7	6.7	1.9	100.0
자 판 매 / 영 업 / 서 비 스	(81)	52.1	43.9	2.8	1.2	100.0
생 산 / 기 능 / 노 무	(115)	49.0	44.3	6.8	.0	100.0
사 무 / 관 리 / 전 부	(155)	57.6	40.5	1.9	.0	100.0
주 학 무 직 / 기 타 / 무 응 답	(184)	44.0	52.4	.9	2.7	100.0
학 무 직 / 기 타 / 무 응 답	(74)	36.0	59.8	4.2	.0	100.0
무 직 / 기 타 / 무 응 답	(59)	42.8	44.0	8.1	5.2	100.0
가 구 소 득	(89)	35.6	53.0	7.4	4.0	100.0
100 만 원 이 하	(150)	46.6	49.8	2.6	1.0	100.0
101 - 200 만 원	(166)	51.0	45.7	3.3	.0	100.0
201 - 300 만 원	(113)	53.9	40.7	4.5	.9	100.0
301 - 400 만 원	(210)	51.9	46.4	1.6	.0	100.0
401 만 원 이 상	(73)	31.4	51.9	10.0	6.7	100.0
기 타 / 무 응 답	(73)	31.4	51.9	10.0	6.7	100.0
관 령	(170)	48.7	43.3	5.8	2.2	100.0
인 권 / 경 기	(220)	44.5	50.6	3.0	1.9	100.0
대 전 주 경 중 전	(80)	44.4	48.7	5.3	1.7	100.0
광 주 구 경 중 전	(83)	57.7	37.8	4.6	.0	100.0
대 부 산 / 울 산 / 경 남 주	(84)	45.4	48.8	4.9	.8	100.0
부 산 / 울 산 / 경 남 주	(128)	49.6	48.3	1.3	.8	100.0
강 원 / 제 주	(33)	36.6	59.8	3.6	.0	100.0
흥 미 상 태	(206)	52.2	44.7	3.1	.0	100.0
기 흥 / 사 흥	(556)	46.2	47.8	4.3	1.7	100.0
이 흥 / 무 흥	(32)	28.1	63.9	4.1	4.0	100.0
무 흥 / 무 흥	(7)	81.2	11.6	.0	7.2	100.0
계 상 위 인 식	(83)	53.2	46.8	.0	.0	100.0
중 위 산 계 중	(359)	49.5	47.0	2.9	.6	100.0
하 위 산 계 중	(345)	43.6	48.1	6.2	2.1	100.0
무 위 산 계 중	(13)	47.2	41.4	.0	11.4	100.0
국 정 무 영 평 가	(272)	50.6	44.7	2.5	2.1	100.0
부 정 무 영 평 가	(502)	45.2	49.4	4.6	.8	100.0
무 정 무 영 평 가	(25)	54.2	34.3	7.5	4.0	100.0
이 념 성 향	(210)	48.6	45.2	5.2	1.0	100.0
진 보 보 도	(324)	45.2	49.1	5.0	.7	100.0
보 보 보 도	(244)	50.6	45.4	1.8	2.1	100.0
무 보 보 도	(22)	30.7	62.7	.0	6.6	100.0
정 당 지 지 도	(276)	47.3	49.2	2.8	.6	100.0
민 주 진 보 당	(118)	52.0	45.0	3.0	.0	100.0
자 주 진 보 당	(25)	58.5	39.6	1.9	.0	100.0
민 주 진 보 당	(54)	57.7	36.9	5.4	.0	100.0
창 조 진 보 당	(14)	26.7	73.3	.0	.0	100.0
진 보 당	(23)	55.8	35.0	4.9	4.3	100.0
기 타 / 무 응 답	(17)	46.8	48.8	4.4	.0	100.0
지 지 정 없	(250)	42.0	49.9	5.6	2.5	100.0
무 지 지 정 없	(22)	49.0	37.5	4.5	9.0	100.0